

# “제주 본향당 이야기”

## - 구좌읍 행원리 큰당, 남당 신화 -

1. 채록대상자 : 서순실/제주큰굿보유자
2. 채록일자 : 2017.06.26

### 행원리 큰당(본향당)

이중춘 어르신이 이 본풀이를 행원마을의 개개인집에 굿을 갔을 때는 다른 심방들과 좀 틀려서 본당에 나올 때는 본당 신풀이를 합니다. 본당 신풀이를 하니까 그때 들었던 거고 이 당제일이란 게, 당맨 심방과 가족끼리,

가족끼리 와서 당골들이 오면 올렸다가 가족들이 내리고 심방은 몸 맨 심방은 앉아서 삼판을 지으면서 하는데, 이 당제일에 이중춘 어르신 살아계실 땐 저는 한 번도 안 와 봤습니다. 안 와봤고,

이중춘 돌아가시면서 이 당을 매게 된 건데. 이 당 본풀이는 옛날 나주고을 나주목사가 제주도 부임해서 들어와서 부인과 같이 이렇게 좌정할 자리를 찾았던 거 같아요. 찾는데 반자나무 상가지에 좌정을 하니까 그 반자나무란 곳이 어딘 중은 모르겠습니다. 반자나무 상가지에 좌정을 하니까 그 반자나무 상가지가 이렇게 무너진 거라 알로.

알로 무너지니까 이젠 찾으며 찾으며 온 게 행원 ‘청처니동산’. 저 우에 청처니 동산 와서 이제 이 행원 마을에 이렇게 보니까 이디가 이 동네가 옛날 지렛물 동네네. 이 아래가 좋을거 같다 해가지고 이 당신이 이디 와서 이 지렛물에서 여기를 좌정했습니다.

좌정해서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이 선달그믐날은 개문개탁 모든 걸 출린다. 선달그믐날 ‘개문개탁’행 ‘대술림제’ 해영. 옛날에 선달그믐날도 맹질 차리고나서 당골들이 왔습니다. 오고 정월 초하를날 신과세 열려서 문을 열리면, 초이틀 초사흘날 집에서 맹질 끝나면 돼지고기만 빼고 모든 거를 가지고와서 이디 와서 과세를 합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다 와서 과세하고. 나주목사 나주판관 지 만드러 거정 요 왕궁전 대부인 부인. 부인님은 정월 보름날 바다에 요왕문을 열려서 남당알로 가면 남당하르방 할망과 중의대사광 같이. 요왕문을 열려 상 받는 신. 그리고 한곳에는 이제 여기에 같이 한 거는 장칩이. 장칩이 ‘만주천신소신대왕’ 이 신은 이거는 본 안풀겠습니다 안풀거라서. 여기 같이 좌정을 했어요. 좌정을 해서 장칩이 자손들이 이제 꼭 참석을 합니다.

초이틀 정월 보름날. 그래서 여기는 딱 제일은 초이틀날 아니면 초사흘날. 초이틀

날 못오면, 초사흘날 오고. 정월보름날은 오고. 그 다음은 칠월 열나흘. 그것만 딱 지정되고 그 다음은 수시로 내가 답답할 때, 당골들이 아이들이 아팠을 때, 뭔가 멀리 외국을 갔을 때 시험 보게 되면. 이렇게 재산을 사나 집안에 좀 좋은 일 있을 때도 찾아오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도 찾아오는 당신.

## 행원리 남당

행원리 마을에 나주목사 나주판관은 큰 본향. 이쪽에는 바다, 바다의 어부와 해녀들이 군인 간 애기들, 육지물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시는 신인데, 이 신은 아방은 강원도여 어명은 철산이여. 강원도 철산에서 중의대사님이 솟아났는데, 당도 파락이 되고 절도 파락이 된 거라.

그래서 어디 좌정할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로 들어온 게 조천 앞선 돌로. 앞선 돌로 배대봉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마을 하나하나 걸치며 오는데, 북촌 정지폭낭아래 오니까 쉬었어.

쉬었는데 사람소리가 우자우자우자 소리 낭 강 보니까, 진천지영감 진천지영감이 일백년 살안. 이제 도새기 잡아냥 잔치하는델 간거라. 겐 도새기 꺾기 삶은 괴기에 삶은 국물에 국수를 말안 주니까, 중의대사님이 이 마을에도 중의대사한테 이렇게 도새기 괴기 삶은 국물에 국수를 말아줍니겐 하난, 우리는 중의대사님인줄 모르고 대접을 했다 이거라.

그래서 아 이디는 있을 고단이 아니로구나 해서 넘어가는 게 월정으로 해서 이 행원을 온거라. 이제 저기 보이는 게 '청처니동산' 저기가. 저 팔각정 보이는 디가. 저기가 '청처니동산'인데 저기 가서 앉아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디 좌정했던 '오분작할망'이 제주도는 송키구덕, 송키구덕 옆 등이에 꺾 청처니동산에 마농을 캐러 간거라. 마농을 캐러 가서 보니까 중의대사님이 이신거라게,

소승절이 됩니다.

하난 어느 절당에 대사님이 이디 와서 이수겐 하난, 나는 아방은 강원도 어명은 철산인데 강원도 철산에서 당도 파락이 되고 절도 파락이 되언 제주도와서 오는 게 청처니동산와서 여기 앉궤는 게문 읍서 나영 같이 내려가게. 내려온 것이 여기 내려온 거라.

여기 이시난 '문씨고냥할마님'한테 강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니까 경허건 데려오라 나영같이 흔어깨 좌정허게. 여기 좌정해서 있으니까 자손들이 안 찾아부는 거라. 그래서 세경 너른 판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을이라 조가 다 노릇노릇 익언 곡식이 고고리 고개숙연 이시난 갑자기 흥년을 불러준거라.

겐 마을사람들은 조오니, 우똥이, 기진이, 찰방, 어른아이 남녀노소 모두 나와서 회의를 한 거라. 회의를 하난 어디 강 문복단점을 드리리 누군가가 곧는 말이 저기 중의대사님 이십디텐. 겐 이디 완 중의대사님한테 우리 오영팔관 단수육갑 짚어봅서 이

마을에 시한 한고비 들었수댄 하난, 그건 내가 불러준거라. 계민 이거를 풀려줍서. 풀려주마.

계난 고실틀엉 조 남태에 털어당 돌방에 찍엉 돌레 월별 시월 보름날 집집마다 요만큼한 돌래떡 해영. 중의대사님 권제받으레 다녀. 권제받으레 다녀서 시월 보름날은 이디가 제일날. 옛날에는 집집마다 권제를 다 내놨대, 권제를 다 내면 그걸 갖다가 제일했는데, 이젠 우리시대나니까 그냥 자손들이 지어서 와서 여기와서 제일을 지낸다.

그래서 여기서 해녀가 물에들면 바다니까 ‘숨비기소리’ 숨비기소리 들으면서 어느바당 어느바당 들었구나, 또 배가 돛단배를 이렇게 가면 어디어디 영 갔구나, 상불턱 중불턱 하불턱 가는선 오는선 차지 해연 ‘남당지관’ ‘남당하르방’ ‘남당할망’ ‘중의대사’ ‘시영머들문씨고냥할망’ ‘오분작할망’ 이 신이 여기 좌정했수다.

그래서 당 맨 심방이 옛날엔 심방들도 많았고 했는데 이제 시대시대 흐르면서 행원에는 이중춘 어르신이 이 당을 맡아서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걸어서 와야 돼. 여기 올 때는 밤에만 와. 밤 12시만 넘으면. 오는데 나이 드신 어른이라 불편했던 거 같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을 행원 해녀들하고 의논해서 웃당으로 니네 다 웃당으로 출런 오라 한. 웃당에서 제일을 했는데, 그 역할 때문인지 무신 때문인지 이중춘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이 당신은 해녀도 하나 돌아가셨고 그 곳하면서 신을 원래 원상복귀 해놓자 그래서 내가 이 원상복귀를 했습니다.